



한-인도네시아 여성노동자 교환프로그램의 하나로 한국에 온 인도네시아 여성노동운동가 3명이 19일 서울 구로동 한국여성노동자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지에서 진출한 한국업체들의 비인간적인 노무관리를 폭로하고 있다. 유창하 기자

해외 한국기업 노동학대 '악명'

인도네시아 여성노동운동가 3인 방한 폭로

인력난과 고임금에 떠밀려 2~3년 전부터 동남아에 진출하기 시작한 한국기업들이 비인간적인 노무관리로 현지에서 물의를 빚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저렴한 노임과 풍부한 노동력을 찾아나선 일부 한국기업들은 지난 60~70년대 국내의 노동상황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가혹한 노동조건을 강요해 현지인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은 물론 앞으로 국제적 인권문제로 비화할 소지마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시아여성위원회가 주관하는 한-인도네시아 여성노동자 교환프로그램의 하나로 지난 12일 한국에 온 인도네시아 여성 노동운동가 아유니(35), 베티 푸르바(32), 안드리안 노리(31) 등 3명이 19일 밝힌 한국기업의 노무관리 실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제조업체의 동남아 진출과 관련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있다.

"주문이 밀릴 때는 24시간 밤샘작업을 시키는데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아예 문을 잠가버리기도 한다. 노동법에 규정된 생리·연차휴가조차 찾을 수 없다. 심지어

**"몸검사 뒤 생리휴가
잡담엔 입에 반창고
붙었다고 눈썹 깎아"**

어는 특별히 생리휴가를 내줄 때도 진짜 생리를 하고 있는지 몸검사를 하기도 한다."

현재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은 모두 2백여개, 섬유와 피혁 등 국내 노동자들이 취업을 꺼리는 이른바 '3D업종'이 주종으로 극심한 인력난을 겪는다 못해 동남아에서 탈출구를 찾은 '한계업종'들이 대부분이다.

아유니등은 "심지어 작업중에 옆사람들과 잡담했다는 이유로 반창고로 입을 틀어막고 조는 사람들의 눈썹을 면도기로 밀어버린 현장감독들도 있다"며 "뺨을 때리는 건 흔한 일이고 여성노동자들을 성적으로 희롱하고 폭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들 노동운동가는 "여러 나라의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들어와 있으나 유달리 한국과 대만기

업에서 이런 비인간적 학대가 잦다"고 말하고 "한국기업 입장에서 이런 비인간적 노무관리는 장기적으로는 큰 해가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지난 9일에는 한국사람이 경영하는 한 의류생산업체에서 자각했다는 이유로 여성노동자 60여명을 공장마당에 모아놓고 두손을 머리에 올린 채 한쪽 발을 들고 서 있도록 한 적도 있다. 결국 20여명이 일사병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러한 비수한 예는 무수히 많다."

아유니는 "앞으로도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의 인상과 한국기업의 장래를 위해서도 이런 잘못된 행태는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노동사정에 밝은 아시아여성위원회 관계자는 이들의 설명이 "60~70년대 한국노동자들의 어려웠던 처지를 새삼 떠올리게 한다"면서 "저임금을 찾아가는 것은 자본의 생리이지만 최소한의 기본권은 보장하면서 영리를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남기 기자